傘下支部動靜

▲協會本部

・朴萬鍾會長및 事務局長은 지난 10월28일 農水産部 田作課 主管의 生藥材 적정生産 및 販路對策協議會에 참석。

・지난 11월1일 慶北支部의 定例綠生會에 事務局長 참석。

・지난 10월31일 忠北支部의 定例綠生會에 田部長 참석。

▲慶北支部

경북도 지부에서는 지난 11월1일 安東市에서 안수범 소장 主管으로 定例綠生會를 開催하고 道支部관하 生藥分野 현실에 대한 地域間 相互 정보교환과 自體團合및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였음。

▲忠北支部

忠北道支部에서는 지난 10월31일 신단양읍에서 장기홍소장 主管으로 定例綠生會를 개최하고 期間中生藥材 流通情報교환과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였음。

86마무리—會費納付 完結當付

▲協會本部에서는 금년도 諸運營을 원활하게 마무리 짓기 위하여 現在까지 체납된 會費一切를 일괄 징수가 可能한 市・道支部에서는 支部長께서 其他는 分事務所에서 오는 12월15일까지 各已完納해 주실것을 당부하고 있아오니 어려운 點이 있으시더라도 支援協助해 주시기 바랍니다。〈事務局〉

〈2면에서 계속〉

이상과 같이 5종의 幾種을 구분했다。

2、栽培適地

牡丹의 분포는 咸鏡北道를 제외한 전국에 재배가 된다。재배상 氣候條件으로는 따뜻하고 건조한 곳이적당하며 全羅南北道、慶尙南北道지방에서 가장 잘된다。中部地方 이북에 있어서는 대부분겨울 동안에 防寒이 필요하다。

土質은 물이 잘 빠지고 有機質이 풍부하며 表土 밑에는 다소의 자갈이 있는 埴壤土나 粘質壤土로서 東南向으로 좀 경사진곳이 가장 적당하다。

3、繁殖法

藥用으로서의 繁殖法은 播種法과 포기나누기법의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포기나누기법을 活用하여번식하고 있다。

한편 觀賞用으로는 번식할 때는 上記한 두가지 방법으로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접붙이기도 하고 있으며 그 대목은 牡丹 자체에 뿌리에 접붙이지만 주로 芍藥 뿌리에 접붙이는 것이 有利하다。

①實生法

5월 하순경에 開花하며 8월 중하순경에 成熟된 종자를 곧 苗床에 뿌리면 年內에 發根은 하지만 싹은 地上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播種코자할 때는 7월중에 미리 苗板할곳을 선정하여 잘 썩은 堆肥、草木灰 등을 施用하고 흙과 잘 섞어 두었다가 8월 하순~9월 초순경에 모판을 잘 整地하여 120cm 정도의 두둑을 지어 15~18cm 사방에 2~3알씩 播種한다。3~6cm 쯤 흙을 덮고 가볍게 밟은 뒤에 겨울동안에 겉흙이 얼지 않도록 짚이나 왕겨를덮어준다。다음 해의 이른 봄에 發芽하게 되는데 경험에 의하면 9월 하순에 채종한 것을 빨리 發芽하게 하기 위해서 花盆에 파종하여 溫室에다 넣어두고 발아하는 期間을 시험했는데 약 6개월만에 發芽하기 시작하였다。

種子의 일정한 休眠期間의 처리가 필요하고 또한 發芽促進을 하는것은 위해서는 이와 같은 硬實種子는 事前處理방법이 있어야 한다(種子處理法은 총론에 있으므로 생략함)。

發芽한 것은 그 當年에는 잎이 겨우 1~2잎 정도 나오고 3년만에 줄기도 나오며 간잎의 수효도 더해진다。그 후에 줄 썩은 人糞尿를 묽게 하여줄 것이며 除草 및 해충 준다。3년째가 되면 가을에는 本圃에 정식할 수 있다。

②分株法

어미 나무의 根部에 많이 발생하는 포기싹 눈(萌蘖)을 나누어 9~10월경에 심거나 수확하였을 때 뿌리를 따고 남은 苗頭를 충실한 것이면 2~3눈붙은 것을 잘 쪼개어 切傷部面에 재를 묻쳐서 심는다。

〈特記〉

싹이 많이 생기게하는 방법 : 목단의 種苗를 얻기 위하여 싹이 많이 생기는 방법이 있는데 자라고 있는 것을 그대로 放置해 둘 것이 아니라 봄에 剪定하거나 지상 30~60cm 높이의 主枝에 縱傷剝皮(세로상처)하거나 環傷剝皮(고리상처)를 내어서 地下部의 생장을 억제시켜서 뿌리 부분에 勢力을집중케 함으로써 싹이많이 생긴다。이러한 原理와 비슷한 경험을말하면 시험소 포장에 栽植된 높이 180~210cm 정도 되는 흰牡丹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는데 태풍에 의해서 地上30cm 높이의부분이 부러졌으나 다행히 일부 껍질(靭皮部)이 붙어서 支柱를 세워 놓았더니 뜻밖에도 뿌리 부분에서 充實한 싹이 많이 생겼다。이러한 현상은 靭皮의 처리를 하는것과 같이 植物生理現象의 좋은 보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또한가을에 落葉된 후에 바로 地上部의 主枝를잘라버리고 위 處理한것들도 포기 주위를 넓게 파고 잘 썩은 퇴비、깻묵、닭똥등에 過燐酸石灰을 섞어 충분한 基肥를 주어 겨울이 지나면 또다시 이른봄에 잘 썩은 人糞을 묽게 타서 웃거름으로 주게 되면 더욱 효과가 크다。

③接木法

이 방법은 藥用部位를 고려할 때는 이용하지 않으나 재배자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觀賞花草와 藥用을 겸해 할리화시키기 위하여서는 觀賞用으로도 增殖하는 것이 유익하므로 기술적 견지에서 간단히 적어 보겠다。

㉮臺木 : 대목이란 접붙일때 쓰이는 밑그루를 말한다。대목으로는 共臺라 하여 牡丹 대목에다 牡丹 自體의 接穗를 접붙이는 경우와 芍藥臺라 하여 芍藥뿌리를 대목으로 하여목단의 接穗를 접붙이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芍藥뿌리를 臺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그 이유를 간단히 말하자면 芍藥은 牡丹에 비하여 病蟲害가 적고 氣候的으로 耐寒性이 강하고 뿌리의 生育作用이 왕성하기 때문이다。

芍藥臺는 같은 芍藥의 대목이라도 實生苗를 번식한 것을 대목으로 이용하는 것과 母株에서 적당한 뿌리를 얻어서 이용하는 것이 있다。

種子로서 養育한 대목을 이용하려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實用的으로 시일을 보아서 臺木苗를 얻기 어렵다。

兩者중에는 長短點이 있으나 일반으로 芍藥을 8월 하순경에 수확한 것 중에서 엄지손가락 정도의 크기의 品位가 좋은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것이다。

實生 臺木을 얻기위해서는 8월하순경 芍藥의 種子를 채종하여 곧 苗床에 파종하거나 혹은 수확한 후에 濕氣가 있는 모래에 저장하였다가 9월 중·하순경에 파종하는데 이때는 濕度나 溫度를변화시켜서 發根을 촉진케 한다。또한 總論에서 언급한 총자뿌림의 處理法을 이용할것이다。

접붙이는 방법으로서 접붙이는 장소와 작업상의 편의에 따라서 제자리에 臺木을 두고 접붙이는 것과 掘接이라고 부르고、일단 대목을 캐어 접붙이는 방법을 揚接이라 하는데 이 두가지 방법중 形便과 能率에 따라서 선택할 것이다。접붙이는 시기는 9월 상순경이 가장 적기이며 臺木基 엄지 손가락 정도의 큰 것을 선택하여 臺木을 적당하게자르고 대목의 접붙이는 곳의 길이는 약 2~3cm 정도로 깎아 내린 후 깨끗한 칼로 단번에 하지만 초심자들은 쉽지 않으므로 바깥부분에서 2~3회에 걸쳐서 얇게나누어 깎아드러가는 것이 좋고、단번에 깎고 깎아운 바깥 부분을 또 한번 接穗의 크기 정도를 봐서 깎아 내는 수도 있다。

接穗는 가지가 충실하고 勢力이 中程度의 것을 선택할 것이다。

접붙일 때는 충실한 눈(芽) 1~2개 붙인 것을 길이 4~5cm 정도로 잘라서 접수의 基部 20~30° 정도의 銳角이 되도록、단번에 반대면 자르고 반대면도 약간 깎아서 대목의 깎인 부면에 꽂아 接穗의 形成層 部面、즉 껍질部面을 접합시켜서 벗을 씌우고 짚으로 가이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 테프만으로 묶어 주거나 비닐로 묶은 주위를 짚으로 반죽하여 흙칠하기도 한다。

揚接을 하였을 때는 21~24cm 간격으로 접붙이는 포기씩 심고、접붙이는 부분이 깊이로 6~9cm 정도 되도록 한다。그 땅속에 묻힌 것은 건조방지와 防寒을 위하여 짚으로 싸 주거나 왕겨로 적당히 덮어 준다。

접붙인 모는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심는것이 좋다。

즉 牡丹의 臺木에다 접붙인 것은 45~60cm 정도의 깊이로 심을곳을 파며 芍藥 臺木에 접붙인 것은 30~45cm 정도로 파서 한 포기당 밑거름으로 잘 썩은 堆肥 1·5kg、草木灰 100g、깻묵 30g 정도를 흙과 잘 섞은 뒤에 심는다。

〈다음호에 계속〉

牡丹

生藥材의 生産및 販路對策 擴大추진

農水産部

◎農水産部는 지난 10월28일 최근 生藥材의 需要증가에 따른 농가소득작물로서의 비중을 고려 이를 支援育成하는 方案을모색코자、관계생산단체 및 需要企業들을 한자리에모아 其可能性을 協議한바있다。관계당국에 따르면이미 生藥材를 部分的이나마 農家所得作物로서 지역별로 育成擴大施策을 펴고있으나 일부품목의 경우 지역간 생산불균형과 심한가격등락으로 生産農家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民願이 빈번하다고 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점을 是正補完코자 生藥을 많이 需要로하는제약회사와 生産農家를 연계한 계약재배방법을 推進하기로 계획하고 其대책을 강구중에 있다고 한다。

이날 協議會에는 主務當局에서 生藥關係 實務陣과 農家所得作物로서 育成方案 강구

農家所得作物로서 지역별 育成擴大施策을 펴고있으나 일부품목의 경우 지역간 생산불균형과 심한가격등락으로 生産農家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民願이 빈번하다고 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점을是正補完코자 生藥을 많이需要로하는제약회사와生産農家를 연계한 계약재배방법을 推進하기로 계획하고其대책을 강구중에 있다고한다。

이날 協議會에는 主務當局에서 生藥關係 實務陣과 農水産部 그리고 광동、일양、조선、한국제약등 유수製藥會社에서 주무담당관들이 참석하여 현존 하고있는 諸問題點들을 광범위하게 論議한바 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특별히 論議된 사항은 현재의 栽培→出荷단계와 농수산부소관) 出荷이후의 첩體受權態勢確立 및 會勢伸張에 더욱 증진해 나가야할 것으로 본다。

▲其對策으로서는…

●관련 부처별 업무한계 조정

●적정 생산 體係確立

※제약회사등과 계약재배권장 및 확대

※지역특산 작목육성 지원확대

※재배기술 및 가격정보의 신속한 제공

●기술 및 영농지도강화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 추진

※표준유통규격 제정협의

※협회를 통한 계통출하 증대유도

※매점매석등 불법단속 강화

●재배연구 강화

※주요品種선정 및 재배시험 확대

※지역특산작목 시험실시 등이라고 할수 있다。

〈편집부〉

의약품輸出 행정지원 강화

보사부 新藥 독점생산기간 연장

정부는 의약품 수출을 촉진을 위해 신기술제품 보호업체가 일정량이상 수출시에는 신약보호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합작투자업체가 일정비율의 약품수출을 할 경우 원료의약품 생산의무를 면제하고 외국인 투자비율이 50%를 초과할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24일 이같은내용을 골자로한「의약품수출촉진방안」을 마련、관계부처협의가 끝나는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신약개발업체가 일정량 이상의수출을 할경우 현재 완제의약품 1~2년、원료의약품 3~5년으로 되어있는 신약보호기간을 연장해 주기로했다。

보사부는 국내개발 신약에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대신 국내에서 생산이 안되는 품목은 약가인하를 위해 관세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연간매출액 10억이상 업체의 경우 5%이상을 수출해야 하는 생산실적에 대한 일정비율의 수출권장액을 부과하는 한편 제약업체의 기초화학및 정밀화학 분야 발전을 위해 매출액의 5%이상을기술개발에 투자토록하고 업계의 연구소 설립을 권장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특히 南美·아프리카등 미수교국가와의 통상을 위해 구상무역을 추진하고 약품공업협회、화장품공업협회、의약품수출입협회등에 정보실을 설치운영、해외시장 동향을 파악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와관련 리팜피신 아목실린하이드레이트、암피실린、유로키나제주사액、겔포스、우황청심원、산수유붕대등8개품목을 수출전략상품으로 지정하고 약품공업협회、의약품수출입협회、화장품공업협회、의약품수출입협회등에 정보실을 설치운영、해외시장 동향을 파악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와관련 리팜피신 아목실린하이드레이트、암피실린、유로키나제주사액、겔포스、우황청심원、산수유붕대등8개품목을 수출전략상품으로 지정하고 약품공업협회、의약품수출입협회등에 정보실을 설치운영、해외시장 동향을 파악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특히 해외시장을 새로 개척하는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에 대한 수출독점권을 일정기간 부여하는 한편 공산권과는 제3국을 통한 수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제까지 수출추천을 해주지 않던 원료의약품 前단계 물질도 수출대상국이 보사부의 추천서를 요구하면 해당업체에서 추천서를 교부해주기로 올들어 지난 8월말현재의약품수출은 4천4백94만7천달러로 이를 같은기간 수입 1억3천5백57만2천달러에 비교하면 의약품무역수지는 아직도 9천62만5천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한방醫保 全國확대 확정

내년3월내 實施 2천9백여療養기관 지정

韓方의료보험이 내년부터 전국에 확대실시된다。

보사부는 15일 지난84년 12월부터 충북淸州市와 淸原郡에한해 시범실시해 온 韓方의료보험을 늦어도 내년 3월1일부터 전국에확대실시키로 확정、이를 위해▲한방의료보험 요양기관지정▲보험수가 및 韓藥보험가고시 ▲韓方의료인에 대한 보험업무교육등실무준비작업을 벌이고있다。

보사부는 한약재 유통구조문제와 규격화 미비로한약가고시에 어려움이커 우선 침약(貼藥) 처방을제외한 침(鍼)·구(灸)및부항(附缸) 등 기술료와 엑스·과립등 생약제에 한해서만 보험급여를 실시키로했다。 침약처방은 시행과정에서 점차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이달말로 시범사업이 끝나는 淸州市와 淸原郡의 韓方의료보험은 전국확대전까지 연장 실시키로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내년2월말까지 서울지역 1천4백여개를 비롯한 전국의 2천9백여 한방의료기관을 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현재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백10종의 한방엑스·과립제에 대한 보험약가를 결정고시하는 한편 한약생산·공급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보험수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淸州·淸原의 경우 현재 총진료비 1만원 이하일때 정액제로 초진은 2천2백원、재진은 1천7백원인 현행수가를 전국확대실시와 동시에 5~7% 선에서 인상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보사부가 韓方의보를 전국확대키로 한것은 한의·한약업계와 한의대생들의 강력한 요구와 淸州·淸原지역시범사업 평가가 좋게 나왔기 때문。

또 의보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洋方진료비 증가율이 한방의보실시 이전에비해 2%감소한 반면 한방의보로 인한 피보험자의진료비 추가지출은 1인당연 1천4백85원에 지나지 않는등 실시여건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것도 조기확대실시의 배경이 됐다。

한방의보전국확대로 국민이 안게되는 보험료부담은 연간 2백56억7천2백68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양방진료비의 상대적 감소를 감안하면 부담은 크지 않을것으로 분석되고있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당초 한방의 보급여범위에 첩약까지 포함해줄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으나 지난달말 이 사회를 열고 첩약처방을제외해도 반아들이기로 합의를 보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국 3천여 한약업사들은 크게 반발하고나설것이 예상된다。

보사부는 이달안으로 韓方의료제도협의회(위원장 崔守一차관)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짓고 한방의보전국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한국일보 11월16日字〉